

진도, 물김 위판액 1078억원... 전국 2위 명성 유지

전년 대비 19% 증가 · 생산량도 14% 늘어... 10만여 톤 생산

진도군은 2022년산 물김 생산을 종료한 결과, 총 10만1167을 생산해 1078억원의 위판액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만8000여이었던 생산량이 14% 증가했고 위판액은 900억 원보다 19% 늘어 전국 2위의 명성을 유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지난해 10월 수온 상승 및 잇따라 돌김(갑장김) 작황 부진으로 다소 어

려움 있었지만 안정적인 수온과 김 생산 어업인들의 꾸준한 어장관리로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

고품질의 원초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신제품 개발을 위해 어장별 해양환경 특성조사와 김 양식어업인 기술지도 위탁사업을 체결해 현장지도를 한 결과 또한 생산량 증가에 기여했다고 진도군은 밝혔다.

진도군 관계자는 "김 품질 및 생산량 증가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특히 김 포자, 배양장, 채묘시설, 냉동보관시설 지원을 통한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수산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진도 김은 적조가 없는 청정 바다에서 생산돼 미세탈과 칼슘이 풍부하고 몸의 독소 배출·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블랙푸드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진도=박재영 기자



순천 콜택시 모바일 앱 '순천미인콜' 출시

신속 · 안전 · 친절할 택시 서비스 제공

순천시는 신속 · 안전 · 친절할 콜택시 서비스를 위하여 순천미인콜, 썬아이니비M과 함께 콜택시 모바일 앱 '순천미인콜'을 출시하여 오는 30일부터 운영 개시한다.

'순천미인콜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순천미인콜' 또는 '아이니비M'으로 검색하여 설치 후 사용 가능하다. 위치기반 택시 호출, 자동결제시스템, 안심문자서비스 등 유선보다 더 편리하게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고, 스마트 기기 사용이 익숙한 고객은 앱을 통해 전화로 간편하게 택시를 호출할 수 있다. 또한 순천시 공식 앱과의 연계를 통한 관광정보 제공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순천미인콜 앱 출시를 기념하여 프로모션 행사도 진행한다. 앱을 설치하는 경우 2천원권 쿠폰, 지인에게 추천할 경우 추천인과 피추천인에게



각각 1천원권의 쿠폰을 제공한다. 쿠폰은 1달 이내에 택시요금 결제 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순천미인콜 김형경 위원장은 "이번 앱 출시를 통해 운수종사자는 수익이 증대되고, 승객은 더 편안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우리 택시 종사자들은 순천의 홍보대사라는 마인드로 택시 이용고객에게 더 친절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조준의 기자

한국관광공사 안심관광지, 영암군 신규 3곳 선정

왕인박사유적지 · 기찬랜드 · 도갑사, 믿고 가는 안심 여행

영암군은 한국관광공사 안심관광지에 왕인박사유적지, 기찬랜드, 도갑사 세 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관광공사의 안심관광지는 관광지 위생,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여행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본적인 방역을 잘 준수하고 위생관리가 우수한 관광지들 중 관광자원이 매력적이고 친환경적인 곳을 선정하여 매년 안심여행 캠페인에 홍보하고 있다.

영암은 기존에 월출산국립공원이 선정된 바 있고, 이날 왕인박사유적지, 기찬랜드, 도갑사가 신규로 선정됐다. 왕인박사유적지는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인문학 관광지로 넓고 탁 트여 잘 조성된 정원과 산책로로 가족들이 소풍 오기에 적합한 장소로, 벚꽃이 만발하는 계절에는 왕인박사유적지까지 이어지는 100리 벚꽃길에 사람들의 발이 끊이지 않는 명소이다.

기찬랜드는 문화관광자원이 집적화된 관광지로 국립공원 월출산, 자

연령 풀장, 가야금산조기념관, 한국트롯가요센터 등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에게 놀거리와 볼거리를 한번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복합 피서 공간으로 손꼽힌다.

도갑사는 국보를 보유한 유서 깊은 고찰로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가능한 힐링 관광지이다. 경관을 정비해 공원을 조성하여 청정한 자연을 느끼며 조용한 재충전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영암의 세 곳 외 다른 안심관광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영암=김형두 기자

함평 축산농장 울타리 사업 추진

친환경 축산업 실현

함평군이 자연 친화적인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23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동면에 소재한 육계농장에 친환경 축산업 실현을 위한 축산농장 울타리 설치공사를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최근 축산 악취로 인한 주민과 축산농가 간의 갈등을 해

결하고, 위생적인 사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울타리 설치 사업을 통해 야생 멧돼지, 쥐 등을 차단함으로써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은 물론 축산 악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 친화적인 축산환경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정섭 기자

강진 '제6회 마랑놀토수산물시장' 성황

개장 후 관광객 1만1200명 방문... 매출액 1억 원 달성



지난 7일부터 재개장한 2022년 제6회 마랑놀토수산물시장이 3주만에 올해 누적 방문객 1만1200명, 매출액 1억 원을 달성했다.

마랑놀토수산물시장은 5월 7일 개장일에 5200여 명이 행사장을 방문하고 44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6000여 명이 마랑을 찾아 5600만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등 운영 3주차 만에 누적 방문객 1만1200명, 매출액 1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구매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은행사와 당일 위판관 심상한 활여회를 저렴하게 맞출 수 있는 회뜨기쇼 등 다양한 이벤트로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평이다.

매주 토요일 마랑놀토수산물시장에서는 계절별로 신선한 수산물과 경

품행사를 활용한 이벤트가 다양하게 열린다. 봄에는 갑오징어, 주꾸미, 여름에는 농어와 전복, 갯장어, 된장물회, 가을에는 전어와 꽃게, 낙지, 대하 등을 할인 판매한다. 매주 마랑놀토 토요일음악회도 개최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노래자랑 코너도 운영하고 LED TV, 제습기, 운수메트 등 다양한 경품권 행사도 즐길 수 있다.

한편, 마랑놀토수산물시장은 2015년 개장 이후 2019년까지 연평균 18만 명 이상이 다녀가며 총매출액 90억 원을 기록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해왔다. 올해는 5월 7일 개장식을 시작으로 10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강진 청자 축제기간을 합쳐 모두 30여 회 운영 예정이다. /강진=한홍수 기자

여수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 1억 2000만원 지원

31개 초등학교 전 학년 대상... 해양 안전사고 대응 능력 키워

여수시가 해양 안전사고 시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에 올해 1억 2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31개 초등학교 4292명이며, 학교별로 사업 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해 추진한다. 보조금은 학생 수에 따라 50만~1900여만 원까지 지원되며, 수업에 필요한 강사료, 수영장

입장료, 차량 임차료 등에 사용된다.

'생존수영 교육'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이론학습 위주로 이뤄졌으나,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현장학습을 진행하게 됐다.

각 학교별로 여수시청소년해양교육원, 조이스포츠센터, 망마수영장 등 인근 수영장을 직접 방문해 구명조끼 착용법, 타인 구조 연습, 생존수

영법 등 교육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초등학생들이 물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 해양안전사고 등 위기상황에서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여수시는 지난 2016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여수=조일상 기자

해남 흑석산자연휴양림 '산림휴양의 새 장연다'

휴식처 넘어 예술 · 치유공간 위상제고 눈길

해남군 흑석산자연휴양림이 산림휴양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며 예술과 치유의 체험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해남군 계곡면 흑석산(해발 653m)에 자리한 흑석산자연휴양림은 산림복합 휴양공간으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과 전문 산림교육 등을 운영하는 해남의 대표 산림휴양지이다.

22개 객실의 숙박시설과 숲속 캠핑장 14개소, 유아숲 체험원, 치유의 숲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문을 연 치유의 숲은 치유센터를 비롯해 치유정원, 치유숲길 등 50ha 규모로, 참나무 군락지를 중심으로 한 치유숲길과 울리브, 애기뎃백 27종,

2만여본이 심어진 치유정원이 조성돼 있다.

특히 치유센터에서는 산림치유 지도사가 상주해 숲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상시 프로그램과 함께 주말 원데이 프로그램을 개발, 반려식물 분갈이, 꼬마식물정원사, 숲속 요가, 식물세밀화, 숲 인문학강좌 등을 실시, 숲을 이용한 자연치유의 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지난 14일 열린 숲속음악회에는 400여명의 관객이 찾아 음악과 숲이 어우러진 감동적인 무대로 자연휴양림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자연휴양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

림교육 프로그램도 인기로, 숲 해설가와 유아숲교육지도사를 배치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은 숲에서 자유롭게 놀이와 숲 체험을 통해 전인적 성장을 돕는 자연 놀이 및 계절을 반영한 주제 활동 등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또한 숲해설 프로그램은 숲에서 휴식을 취하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숲과 자연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하고 있다.

흑석산 자연휴양림은 2019년 도내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 2건이 산림청으로부터 산림교육 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2022년 하반기에는 ESG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해남=김동주 기자

'광양 배알도 섬 정원' 한국관광공사 안심관광지 선정

친환경성 · 쾌적성 · 방역 · 안전관리 등 적합성 인정받아

배알도 섬 정원이 방역지침 완화와 일상 회복 단계 전환에 따라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매력적인 안심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양시는 배알도 섬 정원이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22. 안심관광지'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배알도 섬 정원은 전문가들로부터 친환경성, 쾌적성, 방역 및 안전관리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안심관광지의 적합성을 인정받았다.

앞으로 배알도섬 정원은 한국관광

공사에서 운영하는 여행정보사이트 '대한민국 구석구석' 내 특집관 '추천 안심관광지'를 통해 홍보된다. 또한 여행가는 달(6월), 관광 관련 박람회, 일간지 특집기사 등 한국관광공사가 운영 · 추진하는 온 ·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다각적으로 여행객들과 만나게 된다.

배알도 섬 정원은 별 해는 다리, 해맞이다리 등 2개의 해상보도교를 통해 망덕포구와 배알도 수변공원을 잇는 매력 넘치는 낭만플랫폼이다. 특히, 오월의 배알도는 작약, 수국,

페랭이 등 향기로운 꽃들을 차례로 피우면서 향기로운 섬 정원의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섬 앞마당의 초록 잔디 위에 세워진 빨간 배알도 명칭 포토존은 인증사진을 남기려는 방문객들로 장사진을 이룬다.

김성수 관광과장은 "배알도 섬 정원의 안심관광지 선정은 여행객들의 빠른 회복에 부응하고 안전 여행 문화 조성 및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바다 위에 동그마니 떠 있는 아름다운 섬 정원을 더욱 가까이 한련 나와 지구를 모두 위하는 친환경적이며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관광지로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양=조준의 기자

무안 '맑은 물 공급' 배수지 청소 실시

무안군은 군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배수지 청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배수지는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을 각 가정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거치는 대형 물탱크로, 군은 현재 무안배수지 등 9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배수지 청소는 물탱크 내 바닥 퇴적물과 벽체의 불순물 제거 등 물탱크 내부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작업으로, 군은 수도법과 상수도시설 유지관리매뉴얼에 따라 연 2회 전체 배수지에 대한 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군은 배수지 청소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배수지별로 순차적으로 청소를 진행해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최상필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배수지의 청결 유지를 위해 매년 상 · 하반기 2회 배수지 청소를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도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박태연 기자

광양시 세정민원실 순번 대기 시스템 도입

광양시가 세정민원실 이용 편의와 민원처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번호표 순번 대기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순번대기표는 세무 민원인이 순번발권기에서 원하는 업무를 선택하면 접수표가 발행돼 차례로 민원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가 이뤄질 수 있다.

은행이나 병원 등에서는 이미 정착된 시스템이지만 민원전담부서가 아닌 곳에 설치되는 것은 광양시청 내에서 세정민원실이 처음이다.

광양시 세정민원실 순번대기표는 3가지 지방세 제증명 · 등록면허세, 부동산 취득세, 지방소득세(종합 · 양도 · 특별징수) 중에서 업무를 선택할 수 있다.

지방세 제증명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 납부(원납)증명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하고 각종 인 · 허가 관련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부동산 취득세는 건축물이나 토지의 신축, 매매, 상속, 증여 등과 법인설립 등록면허세를 신고받으며,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회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특별징수 업무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시는 6월부터 평일 18~20시 '지방세 야간민원 상담실'을 정기분 세목인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가 과세되는 달의 16일부터 월말까지 운영해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화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205명 추가 모집

화순군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205명을 추가 모집한다.

화순군은 5월 24일부터 6월 8일까지 ▲아름다운마을 만들기(90명) ▲경로당 급식 도우미(115명) 2개 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아름다운마을 만들기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경로당 급식 도우미는 만 60세 이상 화순군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읍 · 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화순읍은 주민자치센터 노인일자리 사무실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누리집(www.hwason.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화순군청 가정활력화 노인일자리팀(061-379-3565)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주영현 기자